www.pref.hokkaido.lg.jp

아카렌가 통신

제 66호 2020년 9월 17일 편집자 국제교류원 김소현

모두 안녕하신가요? 저는 에어컨이 필요없을 정도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곳은 장마가 없고, 습한 날도 적어서 '북쪽 지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름에도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홋카이도의 여름은 풍경이 다채로워지고, 맛있는 제철 음식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냈던지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껏 놀러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민족공생상징공간 '우포포이' 개관

국제과 직원들과 함께 민족공생상징공간 '우포포이'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삿포로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라오이(白老)'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포포이'는 선주민족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이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아이누 문화를 계속 전승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아이누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아이누'는 홋카이도와 사할린 등지에 정착해 살던 선주민족이며, 그들을 지칭하는 '아이누'라는 이름은 신(神)을 뜻하는 '카무이'와 대비되는 존재인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포포이에서는 아이누 민족의 삶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전시품들과 건축물, 라이브 공연과 짜임새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 등은 물론, 아이누의 후손이 들려주는 선조의 경험담을 통해 '아이누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구전으로 계승되는 아이누의 전통 예능을 무엇보다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구전으로 명맥을 이어온 한국의 무형문화재 '판소리'처럼, 그들의 춤과 노래도 직접 전수되는 방식으로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울음 소리를 흉내내며 날갯짓을 하거나, 여러명이 함께 빙글빙글 도는 동작으로 '학'의 움직임을 표현한 아이누의 전통 무용

아이누 전통악기 '톤코리' (오현금)

전통가옥의 내부 모습. 가옥에는 신이 드나들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라오이 지역에서는 동쪽으로 창문을 냅니다.

전통 춤과 노래를 선보인 공연에서는 아이누 민족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흔적들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특징은 그들이 연주했던 악기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얇은 대나무 판에 달린 실을 당기며, 입 안에 대나무 판의 진동을 울리게 하여 연주하는 악기인 '묵쿠리'는 비와 바람, 동물의 울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고,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악기의 독특한 음색은 청개구리가 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나뭇잎에서 튕겨져 나가는 장마철의 빗방울을 연상케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누 민족은 자연계의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톤코리'라는 악기에는 유리나 나무로 만든 구슬을 넣어,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영혼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의 설명을 듣고 예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장소에 '마부이(영혼을 뜻하는 오키나와 방언)'를 주으러 간 등장인물이, 사고 현장에서 돌멩이를 찾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속 인물의 행동도, 아이누 민족과 마찬가지로 '작은 돌'을 통해 영혼을 실체화하고, 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포포이 직원들은 각자 아이누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명법에 관한 설명에서는, 한국의 풍습과 유사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면, 사나운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했던 아이누들은, 일부러 아이에게 강한 느낌을 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래 전에 한국에서 '아명'을 지어줄 때 '개똥이'나 '쇠똥이'처럼 촌스럽고 천한 이름을 지어줘야 아이가 악귀에게 해를 입지 않고, 장수할 것이라 여겼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도, 민족도 서로 다르지만 문화적인 유사성이 나타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이 날은 사슴고기와 더불어, 파의 일종인 '교자 닌니쿠'를 넣은 완자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슴 고기를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홋카이도에서는 학교에서 급식으로도 제공된다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한편, 박물관에서는 흥미로운 전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에서 잡은 연어는 식량으로 이용하고 나서, 껍질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연어 껍질은 질기기 때문에, 의외로 튼튼한 신발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 사슴고기 ▸ 교자 닌니쿠가 들어있는 완자

일정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는, 지역 특산물인 '계란'으로 만든 제품들을 파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자판기로 계란을 판매하는 시스템도 흥미로웠고, 디저트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잠시 앉아서 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 너무나도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풍경이 눈 앞에 펼쳐졌달까요.

홋카이도는 어떤 곳인 것 같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매번 '하늘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만, 청명한 하늘과 우거진 녹음, 푸른 바다가 펼쳐진 시라오이는 진정한 '풍경 맛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함께 한글강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의 한글강좌는 추첨을 통해 수강 인원을 선발하여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강좌를 별도로 실시하여, 도내 진흥국 직원들도 실시간으로 한글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DAY 실시

홋카이도와 경상남도는 2006년 6월 7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교류를 맺은 시기를 즈음하여 매년 경상남도를 홍보하는 소개전과 세미나를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이 불가피하여, 7월 27일에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출신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경상남도와 홋카이도의 교류현황 및 지역 명소, 먹방 메뉴 등을 주제로 우호지역을 소개했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바로가기

✓ **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